

# 판문점 회동, 외교 최악의 날 VS. 노벨평화상 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장기적 안목 없는 리얼리티 TV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판문점 회동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행보라며 노벨 평화상 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일 저녁 CNN 방송에 출연해 "그(트럼프 대통령)는 독재자를 숭배한다."며 "그는 법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도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외교사에서 그것(판문점 회동)은 최악의 날 중에 하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리얼리티 쇼 외교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는 사진찍기 행사를 원했고, 히트를치고 싶었을 뿐이다. 전략도 없고, 장기적으로 어디로 갈지 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2일 켈리언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척 슈머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콘웨이 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노벨 평화상으로 가는 길 위에 있

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지도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과 이야기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며, 제재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 실제로 핵 역량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판문점 회동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켜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행동이라고 항변하고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자신이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는 점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대선에서 이슈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이슈는 미국 대선에서는 큰 쟁점으로 떠오른 적이 없었고, 대선 판에도 이렇다할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으로 거둔 자신의 대북 성과를 상대편인 민주당을 공격하는 무기로 들고 나오면서, 한반도 이슈가 대선판에서 쟁점으로 부상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 국경순찰대원들, '리오그란데강의 비극' 조롱

미국 국경순찰대원들이 페이스북 비공개 페이지에서 사랑한 이민자를 조롱하고, 이민자 수용시설을 방문한 여성 연방하원의원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발각돼 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일 '경향신문'이 AP통신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 독립탐사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1일 전·현직 국경순찰대원 9,5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나는 10-15(국경을 넘으려면 이민자들을 잡아 수용시설로 옮겼다는 뜻의 국경순찰대 암호)'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민자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조롱하는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다.

한 회원은 지난 5월 텍사스주 웰사코 국경순찰대 시설에 수용됐다가 숨진 16세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를 언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말하는 만화 캐릭터의 편집동영상을 올렸다.

다른 회원은 영화 '북기'에 나오는 "죽으면 죽는 것"이란 대사와 이미지로 답했다. 미국·멕시코 접경 리오그란데강에서 지난 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엘살바도르 출신 부녀 사진을 두고 "시신이 너무 깨끗하다."며 사진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도 발견됐다. 사진과 함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말한다."는 글도 덧붙였다.

국경순찰대의 최상위 관할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소셜미디어상에서 혐오 발언 게시물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카를라 프로보스트 국경순찰대장은 "이런 게시물들은 우리 요원들로부터 기대하는 명예와 통합의 가치에 철저히 반대된다."며 관련자 징징계를 예고했다.

이날 이민자 수용시설 방문을 예고한 민주당 소속 여성 하원의원들을 향한 성희롱 글도 여럿 눈에 발견됐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베로니카 에스코바르 의원을 '해픈 여자'로 부르며 이들을 성폭행하자고 하는가 하면,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성행위를 하는 합성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두 의원이 히스패닉계 이민자 가정 출신임을 상기시키면서 텍사스주 클린트·엘패소의 이민자 수용시설을 방문할 때 이들의 전통음식 부리토를 던지자고 부추기는 글도 올라왔다.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은 수용시설 방문 후 "시설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한 여성은 국경순찰대원으로부터 화장실 변기 물을 먹으라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7월 8일 ~ 7월 14일, 2019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易學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남자 길일 : 10, 11, 14 일      여자 길일 : 8, 9, 12, 13 일

 <b>쥐</b>	덕망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하면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위에 맞추어 좋은 사람들과의 교분을 두텁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때이므로, 좋은 일은 남보다 먼저 추진해야 하고 협력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넓은 덕을 베풀고 화합에 힘써야겠습니다. 금전○애정○건강△	 <b>말</b>	태양이 중천에 떠 있으면 세상이 밝고 환해집니다. 이와 같이 운세가 강하고 활기차니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울듯이, 표면적으로는 원기 왕성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점차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끌어 온 일이 있다면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또한 강한 운세를 믿고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애정○건강△
 <b>표소</b>	좋은 때를 만났으니 스스로의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주변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움직이면 더욱 좋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속에서 실속을 찾으려면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일의 흐름을 미리 예측해야 하고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b>양</b>	천둥이 사방에 진동하듯이, 패기와 활기가 넘치는 운세입니다. 따라서 뜻을 세워 노력하면 순조롭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둥이 소리만 크고 실속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목표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b>범</b>	용이 넓은 바다를 만나고, 사방의 물이 한곳으로 흐르는 형국입니다. 임어가 용문에 오르듯이, 직장인은 승진하고 학생은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업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분쟁이 일어나기 쉬우니, 겸손하고 관대하게 처세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b>원숭이</b>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는 격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장래의 더 큰 결실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처음에는 노고가 따르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로써 상대를 기쁘게 만들고, 또한 반드시 더 큰 이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손해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정한 일에 손을 대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금전△애정○건강○
 <b>토끼</b>	겉모습에 치중하게 되고,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하면서도 화려한 생활을 바라기 쉽습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고 실속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계획하는 일은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밖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냉철한 이성으로 앞일을 설계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b>닭</b>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서히 일이 풀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뎌 내면 뜻밖의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삼가고 검소한 마음으로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면 좋은 복록이 생길 것입니다. 명예와 재물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분수를 지키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b>염</b>	분수를 지키고 때를 기다리는 격입니다. 올바른 신념과 실행력으로 성실하게 노력해야겠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면 흥이 변하여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이 생기면 바른 마음으로 은인자중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하여 결점을 찾아내고 스스로의 실력을 쌓음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b>개</b>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 풍년을 맞게 됩니다. 목표를 세운 뒤에 좋은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특히 좋은 협력자의 도움으로 능력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옳은 일은 실행하고 잘못된 일은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특히 공익과 관련된 일은 더욱 좋습니다. 금전○애정○건강△
 <b>뱀</b>	먼저 큰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목표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겠습니다. 스스로를 수양하고 반성하여야 합니다. 혹 어려움이 생기면 경계망동하지 말고 뒷사람이나 동료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계획이 너무 거창하고 일이 분산되면, 도리어 실익을 얻기 힘들 수 있으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b>돼지</b>	원래 하던 일을 지키고 스스로의 분수를 지켜야 하는 격입니다. 산이 한곳에 머물러 있듯이, 부동산으로 지조를 지키고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솔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장래를 위하여 실력을 쌓는 것이 상책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진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이기보다는 한 가지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애정○건강△